

# 제1회 표준화 전략포럼/표준화위원회 Joint Workshop 개최

이한수 · TTA 표준화본부 표준운영부장

## 1. 머리말

현재 표준화 환경은 시장 중심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국제포럼의 '사실 표준(de facto standard)'이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표준을 점차 주도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제기구에 대응하는 포럼 및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한 표준화 포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고, 이들 포럼들은 공동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TTA에서는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해 구성·운영중인 표준총회 산하의 각 기술분야 표준화위원회와 국내의 전략 포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Joint Workshop을 개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Workshop에서 논의된 주요 토의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향후 표준화 활동을 위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문 및 나아갈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 2. 행사 개요

가. 개최일시 : 2002. 6. 12. 09:00~15:00

나. 개최장소 : TTA 대회의실

다. 참석규모 : 총 116명

(표준화 전략포럼 위원회 : 47명, 표준화위원회 위원 : 43명, 기타 : 26명)

라. 행사 프로그램 :

- 오전세션 (09:00~12:00) : 3개 분야별 회의
  -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차세대인터넷·방송 분야/정보보호·S/W분야
- 오후세션 : 13:00~15:00
  - 합동W/S 개최 배경 및 주요 현안 소개(표준화본부장)
  - 패널토의 [주제 : 표준화위원회와 포럼과의 협력 강화 방안]

## 3. 주요 토의내용

오전세션은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 차세대인터넷·방송 분야, 정보보호·S/W분야의 3개 분야로 트랙을 나누어 관련 표준화위원회의 의장단과 관련



표준화포럼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다음내용은 각 분야별 참여포럼/위원회 및 토의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 [좌장 : 안재영(ETRI)]

- 참여포럼 : IPv6 포럼, VoIP 포럼, NONF, NGcN, 광인터넷 포럼, xDSL 포럼, 초고속 정보통신망통합 관리 표준화 포럼, 한국 이더넷 포럼

- 참여위원회 : 통신망 기술위원회, 전송 기술위원회, 망관리기술위원회, 차세대이동통신 프로젝트그룹

• 주요토의내용 :

- 포럼은 위원회와 차별화된 활동영역과 위상을 구축하고 있음
- 시험/검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TTA의 IT시험연구소와 협력관계 구축 필요
- TTA의 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한 관련 포럼들과의 협의회 구성 및 지속적인 협의 필요
- 상호간 표준화 작업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외국의 포럼 및 국제표준화 기구들과의 연계를 통한 표준의 국제화 필요

○ 차세대인터넷/방송 분야 [좌장 : 장병수(KT)]

- 참여포럼 : 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 초고속무선LAN표준화포럼,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인터넷정보가전포럼, 블루투스표준화포럼, MPEG코리아포럼, 차세대디지털방송표준포럼

- 참여위원회 : 구내통신연구반, 방송기술위원회, 전파통신기술위원회, IT응용 기술위원회

• 주요토의내용 :

- 표준제정절차의 개선 등 효율적 표준화 추진 제안
- 표준제정기간의 단축을 위해 포럼에서 진행 중인 표준화 과제에 대해 초안작성 완료 후 제안치 말고 중간단계에서 TTA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
- 포럼에서 작성된 표준을 TTA 단체표준으로 채택코자 하는 노력이 필요
- 국제표준으로 제안코자 할 때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한 검토 및 절차 지원 등 국제표준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제도 마련 요구
- 포럼/위원회간 유기적 관계 성립 및 중복업무 배제를 위한 노력 필요

○ 정보보호/S/W분야 [좌장 : 이홍섭(KISA)]

- 참여포럼 : DRM 포럼, 전자지불 포럼, 인터넷보안기술 포럼,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 포럼, 생체인식협의회, S/W 컴포넌트 표준화 포럼,



e-Book 포럼, 무선인터넷 내용선별기술 표준 포럼

- 참여위원회 : 데이터기술위원회, IT S/W기술위원회, 정보보호기술위원회, IC카드기술위원회
- 주요토의내용 :
  - 포럼과 위원회간 e-mail, Web 등의 정보를 공유할 것을 제안
  -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
  -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표준 개발 필요
  - 포럼과 위원회간의 역할 정립이 분명히 되어야 함.

오후 세션은 본 행사의 개최 배경 및 포럼과 표준화위원회의 전반적인 현황 소개, 향후 바람직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표준화 본부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오전세션의 각 분야별 좌장을 포함하여 표준화 전문가를 모시고 표준화위원회와 포럼과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 토의가 진행되었다. 패널토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 패널토의 》

○ 패널리스트 : 의장 - 박기식(ETRI)



3개 분야별 좌장 - 안재영/장병수/이홍섭  
 이상훈(MIC)/김성권(TTA)/이홍림(KT)/신상철(NCA)


○ 주요 토의내용 :

- 행사의 결과가 운영위원회나 총회로 의견이 상신되어 검토 되도록 하여야 함
- 포럼은 특정 이슈화된 과제에 대하여 표준화 작업을 하고, 표준화위원회는 유행에 덜 민감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활동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
  - => 형식적인 건수위주의 표준(안) 개발을 탈피하고 실제 적용가능한 효율적이고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표준(안) 작성이 중요
- 포럼/위원회 상호간의 활동을 통한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공유 및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
  - =>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 포럼은 내부적으로 자체 운영비 조달 능력에 대한 검토 필요
- TTA 담당 부서간의 상호 의견 조율 필요
- 외국 포럼과의 상호 연계 관계를 파악하고 활발히 참여하여 표준화의 세계화 추구
-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포럼에 지원을 강화하고,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포럼들은 과감히

- 폐지시키는 차별화 정책 필요
- 시장과 기술 개발이 연계된 표준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표준화위원회로 발전

#### 4. 맺음말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 표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큰 양대 기둥인 표준화 포럼과 표준화위원회의 주요멤버들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모든 참석자들이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포럼과 위원회간의 표준화 협력을 위하여 개최된 첫번째 만남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도 계속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본 행사에서 도출된 좋은 의견들을 성실히 실행시켜 나가며, 향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포럼과 위원회는 각각의 역할과 임무가 다르며,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일선상

에서 조화롭게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포럼에서는 포럼에서 개발된 표준을 TTA로 제안하여 TTA 표준으로 채택토록 하는 것이 공식 표준으로서 표준의 보급과 향후 표준의 유지보수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포럼과 위원회간 표준화 동향과 산업동향, 정책방향 등 각종 정보의 교환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게시판 및 mirror site 등을 운영하고 전략적으로 참여가 필요한 국제회의 및 포럼 등에는 사전 준비회의 등을 거쳐 공동으로 대응하고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들을 바탕으로 TTA, 표준화위원회, 표준화포럼 및 정부에서는 향후 표준화 포럼과 위원회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올 10월에 개최 예정인 제2회 표준화포럼/위원회 Joint W/S에서는 금번 워크샵에서 제안된 사항들에 대한 실행 결과와 함께 좀 더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로제타넷코리아, 정보공유 커뮤니티 개설

로제타넷코리아는 최근 홈페이지(www.rosettanet.or.kr)에 'RNK(로제타넷코리아) 파트너 커뮤니티룸'을 신설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RNK 커뮤니티룸은 로제타넷을 이용해 거래를 수행한 사례, 업체간의 로제타넷 추진상황, 관련 활동 등을 파트너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다. 로제타넷코리아는 커뮤니티룸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를 위한 동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거래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국내에서 로제타넷을 확산시킬 모범 사례 커뮤니티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제타넷은 전자업계의 전자거래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적인 비영리 산업 컨소시엄으로, IT·전자부품·반도체·솔루션 공급업체 등 전세계 약 400여개사가 참여하고 있다.